

디자인 발전의 풀뿌리, 조사와 연구 개발: 디자인 R&D

1997

디자인진흥원사

- 제9대 노장우 원장 취임
-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
『산업디자인진흥법』으로 제정 개정
- 한국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서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명칭 변경
- 산업디자인정보화프로젝트(MIDAS)
5개년 계획 착수
- 1차 산업디자인 기반기술 개발
지원사업(1차년도 15개 프로젝트)
- 공인디자인전문회사 100개 등록
- KIDP 홈페이지 오픈
- 코리아디자인센터 설립 당선작 발표
- 국제산업디자인대학원 1회 졸업생 배출
- 디자인경영 상담실 개설

한국 디자인사

- 통상산업부, 산업디자인 병역혜택 추진
- 세계디자인총회(ICSD)
서울 유치 확정
- 2000년 ICOGRADA 총회
한국 유치 확정
- 제1회 한국산업디자인상 제정
(한국산업디자인협회)
- 『디자인네트』 창간
- 이미지드롬의 nixandstorm
월간디자인 선정 디자인대상
멀티미디어 부문 수상

한국 사회사

- 대한항공 801편 광주락하고
-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요청
- 네이버 서비스 시작
- 한보그룹 부도사태
- 야후 서비스 개시
- 사이버 가수 아담 탄생

KIDP가 디자인 분야의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 조사한 역사는 설립 초기인 1972년 실시한 ‘디자인 센서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급한 과제였던 포장 관련 각종 조사 사업을 비롯해 디자인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실태 위주로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렇게 모아진 자료를 분석, 가공해 정부와 유관 기관 및 단체, 기업, 학계 등에 배포하여 연구 개발과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1980년대에는 점차 해외로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해외 시장 동향 및 각국의 디자인 현황, 최신 기술 및 정보, 소비자 기호도 등 기업의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조사 활동을 넓혀 나갔다. 이와 함께 1990년대 중반 까지는 국내외 업체, 전문회사, 학교 등 전문 인력에 대한 기초 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KIDP의 조사 연구 활동에 큰 변화가 온 때는 1993년으로, 이때부터 정부와 산업체, 학계가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 디자인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티내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전략을 수립, 체계적인 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향후 디자인 자립 기술과 디자인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초 기반 연구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도 이 때의 일이다.

이러한 조사와 연구 개발 사업은 2000년대 들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먼저 조사사업의 경우 2002년부터 한국 디자인산업, 투자 및 개발 현황, 경쟁력, 인식 및 선호도 등 국내외 디자인 관련 기반 자료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으며, 2005년부터 ‘산업디자인통계조사’로 공식 명칭을 정하고 격년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2011년부터는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측정으로 범위를 확산해 나갔다. 2014년부터는 조사 주기를 격년에서 1년 단위로 바꿔 좀 더 촘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갔다. 자료가 누적되자 각종 분야에 대한 입체적인 현황 파악이 가능해지고, 국가 차원의 디자인 정책 수립은 물론 기업의 의사 결정과 중장기적인 디자인 경영 계획 수립이 한 충수월해지는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2008년 이후 KIDP가 수행한 조사 자료는 국가 승인 통계로 인정되었으며, 2019년 통계청 국가승인통계 중 정기품질진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국가통계로서의 공신력을 더하였다. 디자인 인접 산업인 생활소비재산업 현황 파악을 위해 산업분류체계를 연구·기획하였으며 해당 산업 실태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KIDP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시행한 기초기반 연구개발 사업, 즉 ‘디자인 R&D’는 디자인 분야의 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KIDP의 설립 초기부터 디자인 R&D라고 부를 수 있는 사업이 존재하긴 했지만, 개별 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도나 개발 지원 위주로 진행되었고, 예산의 한계로 인해 사업의 혜택을 받는 기업은 수요에 비해 늘 턱 없이 부족했다. 특히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식기반 사업의 핵심 분야로 디자인이 부상하면서 산업체의 많은 기업들과 기관, 디자이너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디자인 기반의 기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KIDP가 1994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한 디자인 기반기술개발 연구의 규모는 1,937억 9,100만 원이다. 연구 개발의 범위는 광범위했는데, 디자인에 대한 학문적 고찰부터 소비자 조사, 공용 데이터베이스 구축, 실용 기술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의 디자인 관련 연구 과제들을 발굴하고 연구, 개발에 힘을 쏟았다. 특히 이러한 디자인 기술개발에 대해 수요자가 단계별, 상황별로 필요할



때 선택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요소 기술’, ‘기초 기반 기술’, ‘전유 기술’ 등으로 다양한 단계와 수준으로 나누어 고르게 지원했으며, 학교, 디자인 기업, 일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형태의 연구 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결과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디자인계의 연구 역량이 전반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기획했다.

2009년에는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한국기술거래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 등 기존 R&D 관련 기관 7개의 기능 전체, 혹은 일부를 통합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출범함에 따라, KIDP가 전담하던 디자인 R&D 사업 전체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되었다.

2010년 디자인 R&D 사업과 인접 분야를 결합하고 확장해 또 다른 사업들을 모색한 바, 기존부터 수행해오던 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중 연구 과제 지원 성격을 지닌 디자인소재·표면처리 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통합하여 ‘**토탈디자인기술개발사업**’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광범위하게 확장되면서 디자인에 대한 연구 개발의 스펙트럼 또한 넓어진 환경을 반영하고 있다.

2018년에는 선행 디자인 연구 과제로 미래 환경 예측 연구 강화, 미래 유망 기술의 디자인 적용, 디자인이 주도하는 제조혁신·공공서비스, 혁신·사회안전망 재구축 등 12대 미래 디자인 아젠다를 기획하여 실행에 나서고 있다. 산업디자인통계조사는 통계청이 시행한 2019 통계품질진단에서 98.9점을 받아 신뢰할만한 통계로 평가받기도 했다.